

Kuraray, EVOH 8만톤으로 확장

Pasadena 플랜트 2배 증설 4만7000톤 ... 유럽 플랜트 신설도 검토

일본 Kuraray가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 Pasadena 소재 EVOH(Ethylene Vinyl Alcohol) 플랜트를 2배 증설해 생산능력을 4만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VOH 증설 프로젝트는 2006년 완공 예정이며 JGC가 공사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Kuraray는 EVOH 최대 생산기업으로서 벨기에 Antwerp 소재 EVOH 증설 프로젝트도 진행중인데 2004년 9월 완공하면 생산능력이 2배 증가한 2만4000톤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Kuraray는 일본 Okayama에 EVOH 1만톤 플랜트도 가동하고 있으며 증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글로벌 EVOH 생산능력이 8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Kuraray는 시장 성장률에 따라 2008-09년까지 유럽에 추가 플랜트 신설도 검토중이다.

EVOH 수요는 2자리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이 연평균 13-14%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VOH는 음식포장에 사용되고 자동차부품에서 철을 대체하거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자동차 연료탱크용 Layer로 활용된다.

Kuraray는 EVOH 시장에서 Nippon Goshei와 경쟁하고 있는데 Nippon Goshei는 최근 가동에 들어간 영국 Hull 소재 1만5000톤 플랜트를 포함해 총생산능력 4만5000톤을 갖추고 있다.

한편, Kuraray는 Pasadena에 PVOH(Polyvinyl Alcohol) 플랜트 건설을 검토중이며 현재 Frankfurt 플랜트 2만톤 증설공사를 진행중으로 2005년 여름까지 총 7만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Kuraray는 오카야마에서 PVOH 10만톤, 싱가포르에서 2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5>